

【논문】

조건문에 관한 멜리의 성향 이론과 조건문의 진리 조건

노 호 진*

【주제분류】 논리학, 논리철학, 언어철학

【주요어】 직설법적 조건문, 아담스 논제, 사소성 결과, 조건문의 성향 이론, 조건문의 진리 조건

【요약문】 아담스 논제는 직설법적 조건문 ‘만약 A이면 C’의 수용 정도가 A라는 가정 하에서 C에 대한 조건부 믿음의 정도와 같다는 논제이다. 이 논제는 많은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만, 루이스의 사소성 결과로 인해 우리는 이 논제가 성립하는 조건문이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수용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멜리는 ‘만약 A이면 C’의 주장이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을 표현하기 때문에, 루이스의 사소성 결과가 이 결론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멜리는 특히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죽었다’와 같은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이 대응하는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멜리의 이 주장에 반대하여 이 조건문이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고 논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직설법적 조건문은 어떤 진리 조건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수용하기 위해 실질 조건문의 믿음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의 물음을 통해,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할 어떤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 서울대학교 철학과

I. 들어가며

‘조건문(conditionals)’은 연결사 ‘만약(if)’을 두 요소 문장 A와 C에 적용하여 (적절한 변형을 거쳐) 형성되는 복합 문장을 말한다. ‘만약’의 의미에 관한 우리의 직관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조건문의 이론적 해명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조건문은 ‘직설법적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s)’과 ‘반사실적 조건문(counterfactual conditionals)’으로 구별되는데, 이 글에서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논의를 한정할 것이다.¹⁾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죽었다’, ‘만약 비가 온다면 그 경기가 취소될 것이다’와 같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단순하면서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은 필자가 ‘실질 조건문 분석’이라고 부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직설법적 조건문 ‘만약 A이면 C’가 ($\sim A \vee C$)로 정의되는 실질 조건문(material conditional) ($A \supset C$)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²⁾ 실질 조건문 ($A \supset C$)는 A와 C의 진리치에 의해서 전체 문장의 진리치가 완전히 결정되는 진리 함수적인 복합 문장이다. 실질 조건문은 다른 진리 함수적인 복합 문장들처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실제로 직설법적 조건문이 실질 조건문이라면 우리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과 (직설법적) 조건적 사고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실질 조건문 분석이 옳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

1) Edgington(1995), Bennett(2003) 참조. 한국어에서는 직설법적 조건문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더라도(이었던더라도)...일 것이다(이었을 것이다)’로 표현되는 조건문들이 있다. 이것들이 아마도 가정법적 조건문 혹은 반사실적 조건문일 것이다. 정인교(2002), p. 80 참조.

2) 사용과 언급을 엄격히 구별하기 위해서는 따옴표를 사용해야 하지만, 혼동이 없을 경우 편의상 생략할 것이다.

는 ‘실질 함축의 역설들(the paradoxes of material implication)’의 문제가 있다. 직설법적 조건문 ‘만약 A이면 C’를 간단히 ($A \rightarrow C$)로 표현하자. 실질 조건문 분석이 옳다면 ‘ $\sim A$; 그러므로 ($A \rightarrow C$)’와 ‘C; 그러므로 ($A \rightarrow C$)’는 타당한 추론 형식들이지만 직관적으로 우리는 이 추론 형식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 예컨대 우리는 ‘철수는 오늘 오전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를 믿는다고 하여도 ‘만약 철수가 오늘 오전에 다리가 부러졌다면, 철수는 오늘 오후에 축구를 할 것이다’를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보다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아담스 논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 논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핵심 쟁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II. 아담스 논제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이론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직설법적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식이 직설법적 조건문 이론이 설명해야 하는 자료(data)이다. 그러면 우리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것으로 수용하는가? 다음 ‘아담스 논제’로 알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직설법적 조건문을 언제 수용하고 언제 거부하는지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³⁾

$$(1) \text{ (아담스 논제) } a(A \rightarrow C) = b(C / A), \text{ 단 } b(A) \neq 0.$$

여기서 ‘ $a(A \rightarrow C)$ ’는 ($A \rightarrow C$)의 수용 정도(degree of acceptance)를⁴⁾

3) 아담스의 이 논제에 대한 주요한 기여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 에징턴(1995)이 단순히 ‘논제(The Thesis)’라 부른 것도 이 논제와 유사한 논제이다. Adams(1966), (1975), Mellor(1993), p. 233-4, Edgington(1995), p. 263 참조.

4) ‘수용하다’는 ‘동의하다’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A에 대한

의미하고, ‘ $b(C | A)$ ’는 A라는 가정 하에서 C에 대한 조건부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아담스 논제는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의 수용 정도는 A라는 가정 하에서 C에 대한 조건부 믿음의 정도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 항의 조건부 믿음의 정도 ‘ $b(C | A)$ ’는 보통 두 절대적 믿음의 정도의 비 ‘ $b(A \& C)/b(A)$ ’로 정의된다.⁵⁾ $a(A \rightarrow C)$ 가 충분히 높을 때 단순히 ‘($A \rightarrow C$)를 수용한다’라고 말한다면, 아담스 논제에 의해 A라는 가정 하에서 C에 대한 조건부 믿음의 정도가 충분히 높을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A \rightarrow C$)는 수용된다.

아담스 논제는 많은 증거들에 의해 지지되는 것 같다. 예컨대 높은 정도로 수용되는 조건문을 보자. ‘만약 폭우가 온다면 야구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는 높은 정도로 수용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폭우가 온다는 가정 하에서 야구 경기가 취소될 것이라는 조건부 믿음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수용 정도가 매우 낮은 조건문으로 ‘만약 내가 일주일 정도 훈련한다면 나는 100m 세계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다’를 보자. 이에 대응하여 내가 일주일 정도 훈련한다는 가정 하에서 내가 100m 세계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라는 조건부 믿음의 정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일반적인 A에 대해 ($A \rightarrow C$)와 ($A \rightarrow \sim C$) 사이에 일종의 모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담스 논제를 지지하는 것 같다. A와 $\sim A$ 둘 중 하나의 수용 정도가 높으면 다른 것의 수용 정도가 낮게 되듯이, ($A \rightarrow C$)와 ($A \rightarrow \sim C$) 둘 중 하나의 수용 정도가 높으면 다른 것의 수용 정도는 낮게 된다. 이것은 아담스 논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b(A)$ 가 0이 아니라면 ‘ $b(C | A) + b(\sim C | A) = 1$ ’이 성립하므로 ($A \rightarrow C$)의 수용 정도와 ($A \rightarrow \sim C$)의 수용 정도를 합하면 1이 된다. 그러므로 두 조건문 사이에 일종의 모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

수용 정도는 확률로 볼 수 있다.

- 5) 예컨대 X에 대한 부분적 믿음이나 완전한 믿음은 측정 가능한 믿음의 정도를 가진다. 믿음의 정도에 확률 이론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 램지가 ‘부분적 믿음의 논리’라 부른 것을 얻을 수 있다. ‘ $b(X)$ ’는 X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Ramsey(1926) 참조.

인다.

잭슨이 말한 것처럼 아담스 논제는 또한 램지 테스트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램지 테스트에 의하면 ($A \rightarrow C$)를 수용하는지 알기 위해, A를 자신의 믿음 체계에 더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수정을 한 후, 수정된 새로운 믿음 체계가 C를 포함하는지 살펴보라고 말한다.⁶⁾ 우리의 믿음 체계를 확률 함수로 표상한다면, 이 과정은 A라는 가정 하에서 C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⁷⁾

아담스 논제는 많은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올바른 논제인 것 같기 때문에,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이론은 이 아담스 논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실질 조건문 분석은 아담스 논제를 설명할 수 없다. (진리 조건을 가지는) 문장 X에 대해, X를 수용하는 정도는 X가 참이라고 믿는 정도와 같을 것이다; X를 수용한다는 것은 X를 믿는다는 것이다.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가 단순히 실질 조건문 ($A \supset C$)라면, ($A \rightarrow C$)의 수용 정도는 바로 ($A \supset C$)를 믿는 정도와 같을 것이다. 즉, ' $a(A \rightarrow C) = b(A \supset C)$ '가 성립해야 한다. 그러나 아담스 논제에 의해 $a(A \rightarrow C)$ 는 $b(A \supset C)$ 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b(C | A)$ 와 동일하다. 예를 들면, '내일 태풍이 오지 않을 것이다'의 믿음 정도가 0.9일 때, 실질 조건문 분석에 의하면 '만약 내일 태풍이 온다면, 윈드서핑 대회가 열릴 것이다'의 수용 정도는 '내일 태풍이 오지 않거나 윈드서핑 대회가 열릴 것이다'의 믿음 정도로 0.9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담스 논제에 의해 이 조건문의 수용 정도는 내일 태풍이 온다는 가정 하에서 그 대회가 열릴 조건부 믿음의 정도와 같을 것이고 이것은 매우 낮을 것이다.

실질 조건문 분석에 대한 전통적인 의심은 이 분석에 의하면 ' $\sim A$; 그러므로 ($A \rightarrow C$)'는 타당한 추론 형식이지만, 이것의 반례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담스 논제는 이 문제와도 연결된다. 실질 조건문 분석에 의하면 ' $\sim A$; 그러므로 ($A \rightarrow C$)'는 (매우 단

6) Ramsey(1929), p. 247 참조.

7)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Jackson(1987), p. 14를 보아라.

순하면서) 타당한 추론 형식이므로, 전제인 $\sim A$ 를 수용한다면 결론인 $(A \rightarrow C)$ 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b(\sim A)$ 가 높아 $\sim A$ 를 수용하지만, $b(C | A)$ 가 매우 낮아 아담스 논제에 의해 $(A \rightarrow C)$ 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 $\sim A$; 그러므로 $(A \rightarrow C)$ ’의 추론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A \rightarrow C)$ 에 진리 함수적 진리 조건을 부여하는 실질 조건문 분석이 아담스 논제를 설명할 수 없다면, $(A \rightarrow C)$ 에 비-진리 함수적 진리 조건을 부여하는 어떤 이론이 아담스 논제를 설명할 수는 없는가? 불행히도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해야 할 것 같은 어떤 이유가 제시되었다. $(A \rightarrow C)$ 가 진리 조건을 가져서 $(A \rightarrow C)$ 의 수용 정도가 $(A \rightarrow C)$ 의 믿음 정도와 동일하다면 루이스의 사소성 결과는 (믿음 함수가 사소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 아담스 논제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⁸⁾ 그래서 루이스의 사소성 결과는 $(A \rightarrow C)$ 가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사소성 결과로 인해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 조건적 이론들은 아담스 논제를 거부하거나 아담스 논제를 다르게 해석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⁹⁾

8) Lewis(1976)를 보아라. 루이스의 사소성 결과는 믿음 함수로부터 조건화(conditionalization)에 의해 얻어지는 함수도 믿음 함수라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루이스의 증명이 알려진 후 루이스의 이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소성 결과 증명들이 제시되었다. Eells and Skyrms(1994)에 있는 여러 논문들을 참조하라.

9) 잭슨은 실질 조건문 분석에 ‘규약적 함의(conventional implicature)’에 관한 화용론적 이론을 보충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잭슨은 ‘아담스 논제’를 주장가능성(assertibility)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자신의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잭슨의 이론을 검토할 수 없고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Jackson(1987) 참조.

III. 멜러의 성향 이론

그러나 멜러는 루이스의 사소성 결과로부터 ‘만약 A이면 C’가 진리 조건을 결여한다는 결론이 반드시 함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¹⁰⁾ 멜러에 의하면, 루이스의 사소성 결과는 아담스 논제가 성립하는 조건문 ‘만약 A이면 C’를 수용하는 것이 어떤 진리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을 말하고 있다. 멜러는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 결론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정보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약 A이면 C’를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A이면 C’의 주장은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을 표현한다. 멜러는 추론적 성향도 확률을 가지도록 일반화하는데, 멜러의 성향 이론의 기본 진술은 다음과 같다.¹¹⁾ (여기서 A와 C는 조건문을 포함하지 않는 문장이다.)

(2) ‘만약 A이면 C’를 n의 정도로 수용한다는 것은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n의 정도로 믿을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멜러의 이론은 직설법적 조건문을 수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론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10) Mellor(1993).

11) 멜러 자신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모든 단순한 P, Q와, 모든 n에 대해, $a(P, Q)=n$ 은 $d(P, Q)=n$ 이다.” 여기서 ‘ $a(P, Q)=n$ ’은 ‘(만약 P이면 Q)의 수용 정도가 n이다’를 의미하고, ‘ $d(P, Q)=n$ ’은 ‘P를 완전히 믿는다면 Q를 n의 정도로 믿을 성향이 있다’를 의미한다. P와 Q가 ‘단순하다’는 것은 P와 Q가 조건문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ellor(1993), p. 236.

이제 루이스의 사소성 결과가 (아담스 논제가 성립하는)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결여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이것으로부터 ‘만약 A이면 C’가 진리 조건을, 특히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멜러는 이 결론을 지지하는 논증을 제시한다.

멜러는 먼저 믿음뿐만 아니라, 욕구, 공포 그리고 다른 명제적 태도들도 그 내용으로 진리 조건을 가진다는 것에 주목한다. 어떤 명제 X에 대해서도, 그 X를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욕구하거나 두려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욕구나 공포를 ‘참’ 또는 ‘거짓’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멜러에 의하면, 그 이유는 이러한 심리 상태들에서는 X가 참인 것으로 의도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 참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믿음과 다른 명제 태도를 구별하는 것이다.¹²⁾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믿음이 참을 목표로 한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¹³⁾ 예컨대 영희는 ‘다이어트는 나를 날씬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믿음 B를 가진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믿음이 ‘참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영희가 자신의 이 믿음이 참이라는 속성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면 영희가 자신의 이 믿음이 참이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희의 이 믿음은 날씬해지기를 원한다는 영희의 욕구와 결합될 때 다이어트를 함이라는 영희의 행동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참이라면, 이 행동은 영희에게 원하는 결과를 줄 것이다. 즉, 이 믿음의 참은 이 믿음에 기초한 행동의 성공을 보장한다. 이것이 우리가 자신의 믿음이 참이기를 원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참이 성공적인 행동을 보장한다는 것은 믿음의 진리 조건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우리가 영희의 믿음 B의 명제적 내용 즉, 믿음 B의 진리 조건을 모른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우리는

12) Mellor(1993), p. 237-8.

13) 이 설명과 제시된 예는 모두 Whyte(1990)에 의존한다.

영희의 믿음 B가,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영희의 욕구와 결합되어, 영희를 다이어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영희의 다이어트 행동으로 인해 영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믿음 B의 진리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대략적으로 말해 믿음 B의 진리 조건은, 믿음 B와 날씬해지기를 원한다는 욕구가 야기하는 행동에 의해, 그 욕구가 충족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이다. 이 경우 ‘다이어트가 영희를 날씬하게 만들 것이다’가 영희의 이 행동이 성공적임을 보장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추론적 성향도 참을 목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멜러에 의하면, A를 완전히 믿게 된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도 믿음처럼 참을 목표로 하는데 바로 C 믿음의 참을 목표로 한다. 멜러는 만약 A가 거짓이면 A로부터 C를 추론할 성향은 아마 목표를 놓칠 것이지만, 이 경우 추론적 성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떤 추론의 전제가 거짓일 때 결론이 거짓일 수 있는 것은 추론 자체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멜러에 의하면 ‘A로부터 C를 추론할 성향이 C 믿음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A가 참일 때, A 믿음의 참을 보존하면 된다; 즉, 참인 A 믿음이 거짓인 C 믿음을 야기하지 않으면 된다.’ 멜러는 이 조건을 이 추론적 성향이 항상 ‘참을-산출하는 목표(truth-generating aim)’를 달성하는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조건은 바로 실질 조건문 ($A \supset C$)의 진리 조건이다. 따라서 멜러에 의하면, 이 추론적 성향을 표현하는 ‘만약 A이면 C’가 ($A \supset C$)의 진리 조건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멜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⁴⁾

그래서 단순한 ‘만약 A이면 C’를 완전히 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완전한 믿음이 참을 목표로 하듯이 참을 목표로 하고, 단지 ($A \supset C$)의 완전한 믿음이 성공할 때 성공하는 추론적 성향을

14) Mellor(1993), p. 238. 이 인용문에서 ‘A’, ‘C’는 멜러의 기호 ‘P’, ‘Q’ 대신에 사용한 필자의 기호이다. ‘($A \supset C$)에 대한 완전한 믿음’도 멜러의 기호 ‘B(P \supset C)’를 풀어 쓴 필자의 표현이다.

가진다는 것이다.

‘만약 A이면 C’의 수용이, 즉 어떤 추론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 오직 추론적 역할만을 한다면 멜러의 이 주장은 옳은 것 같다. 내가 ‘만약 A이면 C’를 수용한다면, $(A \supset C)$ 의 참이 참인 A 믿음이 거짓인 C 믿음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징턴이 말했듯이 ‘만약 A이면 C’를 수용하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부터 어떤 믿음을 추론하는 역할 이외에 다른 역할도 한다.¹⁵⁾ 다음 예를 보자.

나는 어제 산에서 어떤 버섯을 채취하여 영희에게 주었다. 나는 명자에게 그 버섯의 형태와 색깔을 설명한다. 설명을 듣고 명자는 나에게 ‘만약 영희가 그 버섯을 먹었다면 영희는 아팠다’라고 말한다. 나는 명자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한다. 나는 영희가 그 버섯을 먹지 않았다고 믿지만, 영희에게 전화하여 그 버섯을 먹지 말라고 말한다. 영희는 나의 말을 듣고 그 버섯을 버린다.

실제로 그 버섯은 해가 전혀 없는 맛있는 버섯이었고, 영희는 실제로 그 버섯을 먹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영희가 그 버섯을 먹었다’를 M, ‘영희는 아팠다’를 S로 표현하자. M은 거짓이기 때문에 나의 ‘만약 M이면 S’의 수용은 멜러에 의하면 ‘참을 산출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나 내가 ‘만약 M이면 S’를 수용함으로써 인해 결국 영희가 그 맛있는 버섯을 버리게 되었다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야기된다. 멜러에 의하면 이 조건문은 참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문의 수용에 기초한 나의 행동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만약 A이면 C’를 수용함으로써 추론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도 한다. 내가 ‘만약 철수가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면, 그의 아내인 명자는 그를 버렸다’를 수용하는 것은 전건이 거짓이라고 하여도, 내가 명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게 만들어 나의 어떤 다른 행동을 야기

15) 아래의 비판은 근본적으로 에징턴의 비판이지만, ‘성공을 보장하는 조건’이라는 개념에 의해 에징턴의 비판을 발전시킨 것이다. Edgington(1995), p. 304 참조.

할 수도 있다.

믿음에 기초한 행동의 성공을 보장하는 조건에 의해 그 믿음의 진리 조건을 설명할 수 있듯이, ‘만약 A이면 C’의 수용에 기초한 행동의 성공을 보장하는 조건에 의해 이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면, 멜러의 주장과는 달리 ‘만약 A이면 C’가 $(A \supset C)$ 의 진리 조건을 가질 수는 없는 것 같다. $\sim A$ 가 참, 즉 $(A \supset C)$ 가 참이어서 멜러에 의하면 이 조건문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문의 수용에 기초한 행동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설법적 조건문의 수용이 야기할 수 있는 추론 이외의 다른 행동을 고려할 때, $(A \supset C)$ 의 진리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은 ‘만약 A이면 C’가 야기하는 행동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sim A$ 가 참이라고 그래서 $(A \supset C)$ 가 참이라고 믿는다고 하여도 ‘만약 A이면 C’를 거부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의 이러한 판단은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IV. 믿음과 추론적 성향

멜러에 의하면 모든 조건문이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멜러는 다음과 같은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이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말한다.

(3)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죽였다.

(If Oswald didn't kill Kennedy, someone else did)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3)은 분명히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다’로부터 ‘어떤 다른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를 추론할 성향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향은 오직 내가 어떤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고 믿기 때문에만 지니게 되는 성향이다. 달리 말하면, 이 추론적 성향은 실질 조건문에 대한 믿음에 의해 야기된다. 이것이 (3)이 표현하는 추론을 현실 세계에 한정시킴으로써, [...] (3)을 진리-함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¹⁶⁾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멜러는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 ‘만약 A이면 C’가 표현하는 추론적 성향은 $(\sim A \vee C)$ 의 믿음의 의해 야기되기 때문에, 이 조건문이 진리-함수적이라고 즉, $(\sim A \vee C)$ 의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말한다.

멜러는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가지는 (3)과 같은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을 ‘사실적 조건문(factual conditionals)’이라고 부른다. 멜러가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컨대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죽일 것이다’와 같은 미래에 관한 어떤 직설법적 조건문들이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들과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실적 조건문들과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⁷⁾

그래서 멜러는 미래에 관한 어떤 직설법적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을 ‘가설적 조건문(hypothetical conditionals)’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른다. 그리고 ‘가설적 조건문’은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이 아니라 루이스-스톨네이커 이론 유형의 진리 조건 즉, ‘현실 세계와 가장 유사한 A 가능 세계(들)에서 C가 참이다’의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말한다. 멜러에 의하면 ‘가설적 조건문’이 이러한 진리 조건을 가지는 이유는 이 조건문이 표현하는 추론적 성향이 현실 세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 의해 전건이 참인 가능 세계에 관한 것이

16) ‘(3)’은 멜러 자신의 ‘(2)’ 대신에 동일한 문장을 지시하는 필자의 표기이다. Mellor(1993), p. 239.

17) 멜러의 이 분류법은 듀드만의 영향을 받았다. 듀드만은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과 미래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을 동일한 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영어의 문법적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잘못된 분류라고 말한다. Dudman(1988) 참조.

기 때문이다.¹⁸⁾

잭슨과 에징턴은 멜러, 듀드만에 반대하여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과 미래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을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제시했다.¹⁹⁾ 베넷은 한때 듀드만에 설득되어 미래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을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이후 다시 생각을 바꾸어 전통적인 분류법이 옳다고 주장한다.²⁰⁾ 필자는 전통적인 분류가 옳다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들을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필자는 전통적인 분류가 옳다는 가정 하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²¹⁾ 특히 멜러의 이론에서 필자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이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가지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필자의 멜러 이론 비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멜러는 ‘사실적 조건문’ 즉, 과거에

18) Mellor(1993), p. 239.

19) Jackson(1990), Edgington(1995), pp. 313-20 참조.

20) 미래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을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베넷의 주장에 대해서는 Bennett(1988)를 보아라. 이후 전통적인 입장으로 돌아온 베넷의 주장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Bennett(1995), (2003) 1장 §6과 22장 §134-5를 보아라.

21) 필자가 전통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램지 테스트’가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과 미래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 모두에 적용되지만 반사실적 조건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에징턴이 말하는 ‘OK 케이스’(즉, 어떤 직설법적 조건문을 수용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반사실적 조건문을 수용하지 않는 사례 혹은 그 반대가 성립하는 사례)가 미래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을 구별하기 위해 미래에 관해서도 구성될 수 있다. 셋째, ‘기바드 현상’(어떤 사람이 완전히 정당하게 $A \rightarrow C$ 를 수용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완전히 정당하게 $A \rightarrow \sim C$ 를 수용하는 현상)이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에도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각주 (19), (20)에서 언급되는 논문들을 참조하라.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의 수용은 실질 조건문의 믿음에 의해 야기되기 때문에, 이 조건문이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말로 참인가?

먼저 멜러가 모든 실질 조건문에 대한 믿음이 ‘사실적 조건문’의 수용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멜러는 아담스의 눈에 보이는 푸른 새 예를 들고 있다. 나는 저 새가 카나리아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저 새는 카나리아가 아니거나 저 새는 노랑다’를 믿는다. 그러나 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약 저 새가 카나리아라면 저 새는 노랑다’를 수용하지 않는다(‘저 새가 카나리아다’를 ‘P’로 ‘저 새가 노랑다’를 ‘Q’로 표현하자). 멜러에 의하면, 이 경우 ($P \supset Q$)의 믿음이 ‘만약 P이면 Q’이 수용을 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새가 노랑지 않다고 지각하기 때문이다.²²⁾ 이것은 실질 조건문의 믿음이 항상 ‘사실적 조건문’의 수용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멜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A \supset C$)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 믿음과 어떤 다른 것이 사실적 조건문 ‘만약 A이면 C’의 수용을 야기할 것 같다.

멜러에 의하면 ‘사실적 조건문’ 즉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 ‘만약 A이면 C’는 ($A \supset C$)의 진리 조건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supset C$)를 믿지만 ‘만약 A이면 C’는 거부될 수 있다.²³⁾ 직설법적 조건문에 진리 조건을 부여하는 이론은 이 진리 조건에 의해 조건문의 수용과 거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멜러의 이론처럼 어떤 조건문의 진리 조건이 성립한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문을 합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면, 이 진리 조건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²⁴⁾

22) 멜러는 실질 함축의 역설들에 관해 말하면서, 실질 조건문에 대한 믿음이 대응하는 추론적 성향을 반드시 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다. Mellor(1993), p. 242-3.

23) 멜러는 이것은 단지 ‘만약 P이면 Q’를 수용하는 것이 ‘만약 P이면 Q’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을 증명한다고 말한다. Mellor(1993), p. 242.

멜러는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죽었다’(만약 $\sim O$ 이면 S)가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O \vee S$), 즉 ‘어떤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의 진리 조건을 가지는 이유는, ($O \vee S$)의 믿음이 $\sim O$ 를 완전히 믿는다면 S 를 믿을 추론적 성향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나중에 멜러의 생각과는 달리, ($O \vee S$)에 대한 믿음만으로 항상 이 추론적 성향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O \vee S$)에 대한 믿음과 어떤 다른 것이 함께 이 추론적 성향을 야기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V.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 조건

필자는 이제 멜러의 이론을 수정한 직설법적 조건문의 성향 이론을 제안할 것이다. 먼저 멜러가 주장했듯이,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의 주장은 어떤 추론적 성향을 표현한다. 즉, 다음이 성립한다.

(4) 사람 p 는 ($A \rightarrow C$)를 n 의 정도로 수용한다 iff 만약 p 가 A 를 완전히 믿는다면 (그리고 여전히 이 성향을 지닌다면) C 를 n 의 정도로 믿을 성향을 지닌다.

(p accepts ($A \rightarrow C$) to the degree n iff p has a disposition such that if p came to believe A (while retaining this disposition), p would have credence n in C).

비-조건문 A 에 대해서는 A 를 수용한다는 것은 A 를 믿는다는 것이다.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를 수용한다는 것은 A 를 완전히 믿는다면 C 를 믿을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A 를 주장하는 것은 A 의 믿음

24)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 조건이 이 조건문의 수용에 기초한 행동의 성공 조건과 연결된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직설법적 조건문은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을 표현하듯이, $(A \rightarrow C)$ 를 주장하는 것은 A 를 완전히 믿는다면 C 를 믿을 추론적 성향을 표현한다(express).²⁵⁾

(4)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향을 규정하는 조건문이 반사실적 조건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A 를 완전히 믿는다면, C 를 n 의 정도로 믿는다’는 반사실적 조건문으로 이해해야 한다.²⁶⁾ 필자는 추론적 성향이 어떤 심적 속성인지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아니라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겠지만 직설법적 조건문은 세계에 관한 어떤 객관적인 사태를 규정하는 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반사실적 조건문은 기본적으로 루이스나 스톨네이커의 가능 세계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²⁷⁾

필자는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가 $(A \supset C)$ 의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²⁸⁾ $(A \rightarrow C)$ 의 주장은 $(A \supset C)$ 의 믿음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더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A \rightarrow C)$ 가 진리 조건을 가진다면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져야 한다. 그러

25) 윤리학에서 ‘표현주의(expressivism)’는 예컨대 ‘철수의 이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도덕 진술을 화자가 철수의 이 행동을 싫어함이라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표현주의에 의하면 도덕 진술은 참 또는 거짓인 어떤 도덕적 실재를 보고하는 진술도 아니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보고하는 진술도 아니다. 도덕 진술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진술이다. 여기서 필자가 사용하는 ‘표현하다’도 윤리학의 표현주의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26)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 문법적으로 미래 시제 가정법적 조건문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4)에서 성향을 규정하는 한국어 조건문이 반사실적 조건문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7) Stalnaker(1968), Lewis(1973) 참조.

28) $(A \rightarrow C)$ 는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보다 더 약한 진리 조건도 가지지 않는다.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보다 X 의 진리 조건이 더 약하다면, $(A \supset C)$ 가 X 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그래서 $(A \rightarrow C)$ 가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보다 더 약한 X 의 진리 조건을 가진다면 타당성의 이행 원리에 의해 ‘ $\sim A$; 그러므로 $(A \rightarrow C)$ ’와 ‘ C ; 그러므로 $(A \rightarrow C)$ ’는 타당한 추론 형식이 된다. 그리고 $a(A \rightarrow C)$ 는 $b(C | A)$ 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b(A \supset C)$ 와 같거나 큰 $b(X)$ 와 동일하므로 아담스 논제도 설명될 수 없다.

나 앞으로 보겠지만 ($A \rightarrow C$)는 ($A \supset C$)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질 수도 없다. 그래서 ($A \rightarrow C$)는 어떤 진리 조건도 가지지 않는다. 필자는 여기서 이 주장을 지지하는 모든 논증들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²⁹⁾ 단지 성향 이론의 관점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옳을 것 같은 몇 가지 이유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는 ($A \rightarrow C$)의 주장이 어떤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어떤 추론적 성향을 표현한다는 것이 ($A \rightarrow C$)가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가 진리 조건을 가진다면, ($A \rightarrow C$)를 주장하는 것은 그 진리 조건이 성립한다는 화자의 믿음을 표현할 것이다. 그러나 ($A \rightarrow C$)의 주장은 어떤 것이 성립한다는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설법적 조건문이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 즉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진리치를 결여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약 비가 왔다면 그 경기가 취소되었다’를 주장한다고 가정하자. 내가 이 조건문을 수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비가 왔고 경기가 취소되었다면 이 조건문이 참이고, 실제로 비가 왔지만 경기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이 조건문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A \& C$)가 참이라면, ($A \rightarrow C$)의 수용에 의해 참인 A 믿음을 가질 경우 참인 C 믿음을 산출할 것이므로 ($A \rightarrow C$)도 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A \& \sim C$)가 참이라면, ($A \rightarrow C$)의 수용에 의해 참인 A 믿음을 가질 경우 거짓인 C 믿음을 산출할 것이므로 ($A \rightarrow C$)를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⁰⁾ 그러나 필자는 A가 거짓인 경우, ($A \rightarrow C$)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진리치를 결여한다고 주장한다.

성향 이론에 의하면 이런 부분적 진리치 할당은 자연스러운 것 같

29) 이 논증들에 대해서는 Edgington(1986), Edgington(1995), Bennett(2003) 7장을 참조하라.

30) Edgington(1995), p. 290 참조.

다. 우리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어떤 추론적 성향을 표현한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추론적 성향을 가질 것인지는 새로운 정보에 직면하여 자신의 믿음 체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에 의존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참인 정보로부터 어떤 참인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 자신의 믿음 체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이 경우 성공적일 것이다. 그리고 참인 정보로부터 거짓인 정보를 얻는 경우 자신의 믿음 체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이 경우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거짓인 정보로부터 어떤 정보를 산출할 경우, 자신의 믿음 체계 변화 방식이 이 경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보류될 것 같다. 아마도 자신의 믿음 체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참인 믿음들을 입력 값으로 가질 경우, 거짓인 믿음보다는 참인 믿음을 산출하는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할 만한 믿음 체계 변화 방식일 것이다. 거짓인 믿음을 입력 값으로 가질 경우 그 결과가 무엇이든 이 믿음 체계 변화 방식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은 A가 거짓인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가 진리치를 결여한다는 것과 정합적일 것 같다.

이제, 전건이 거짓인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치를 결여한다는, 그래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VI. 인식적 관련

전건이 거짓인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치를 결여한다는 주장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전건이 거짓인 조건문들 중에서도 어떤 조건문을 수용하는 것은 옳고 어떤 조건문을 수용하는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옳음과 그름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전건이 거짓일 경우에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가? 필자는 이 문제를 ($A \rightarrow C$)를 수용하기

위해 $(A \supset C)$ 의 믿음 말고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한지의 물음에서 접근할 것이다.

멜러의 이론에서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가 $(A \supset C)$ 의 진리 조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A \supset C)$ 의 믿음은 $(A \rightarrow C)$ 의 수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나는 친구가 없는 영희가 어제 외출했다고 믿는다. 나는 ‘영희가 어제 집에 없었다’를 믿기 때문에 ‘영희는 어제 집에 없었거나 영희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sim P \vee Q$)를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만으로는 ‘만약 영희가 어제 집에 있었다면,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P \rightarrow Q$)의 수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나는 $(\sim P \vee Q)$ 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P \rightarrow Q)$ 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sim P \vee Q)$ 의 믿음 이외에 $(P \rightarrow Q)$ 의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예에서 나는 $(\sim P \vee Q)$ 를 믿지만, $(\sim P \vee Q)$ 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sim P$ 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sim P \vee Q)$ 도 이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만, 오직 $\sim P$ 가 직접적으로 지지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지된다. 일반적으로 $(A \rightarrow C)$ 의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sim A$ 를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A \supset C)$ 를 지지하는 증거(혹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 증거에 의해 A와 C 사이에 어떤 인식적 관련이 있게 된다. 이 증거는 달리 말하면, $(A \supset C)$ 를 믿게 하면서 $(A \supset C)$ 를 $\sim A$ 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믿게 하는 증거이다. 만일 이런 증거가 없다면 $(A \supset C)$ 에 대한 믿음은 $(A \rightarrow C)$ 의 수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즉, 필자는 대략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5) $(A \rightarrow C)$ 를 (인식적으로 합당하게) 수용한다 iff (i) $b(A \supset C)$ 를 충분히 높게 하면서, (ii) $b(A \supset C)$ 를 $b(\sim A)$ 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높게 하는 어떤 증거(혹은 정보)를 가진다.³¹⁾

31) $b(A \supset C)$ 를 충분히 높게 하면서 $b(A \supset C)$ 를 $b(\sim A)$ 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b(A \supset C)$ 를 충분히 높게 하면서 $b(\sim A)$ 보다 $b(A \supset C)$ 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높게 하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b(\sim A)$ 가 $b(A \supset C)$ 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히 낮다는 가정에 의해 A가 참일 가능성은 이미 허용된다. 그래서 이제 A를 완전히 믿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새로운 A 믿음은 이미 지니고 있는 $(A \supset C)$ 의 믿음과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새로운 A 믿음으로 인해 이미 지니고 있는 $(A \supset C)$ 의 믿음을 버리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A와 $(A \supset C)$ 의 믿음에 의해 C를 믿게 될 것이다. 즉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을 가진다.³²⁾ 그래서 성향 이론에 의해 $(A \rightarrow C)$ 는 수용된다. 역을 보이기 위해, 내가 문제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 나의 $b(A \supset C)$ 가 충분히 높지 않거나 (b) $b(\sim A)$ 가 거의 $b(A \supset C)$ 만큼 높을 것이다. (a)가 성립한다면 $b(A \& \sim C)$ 가 충분히 낮지 않으므로, 나는 A가 참이고 C가 거짓일 가능성을 이미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A를 완전히 믿게 된다고 하여도 이 A 믿음이 C가 거짓일 가능성을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C를 믿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성향을 가지지 않는다. 즉,

더 높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A \rightarrow C)$ 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인식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A \rightarrow C)$ 의 수용일 것이다.

- 32) 이것을 좀 더 엄격하게 확률 계산에 의해 보일 수 있다. $b(A \supset C)$ 가 충분히 높으면서 $b(A \supset C)$ 가 $b(\sim A)$ 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높다면, $b(A)$ 는 0에 가까운 $b(A \& \sim C)$ 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높고, 따라서 $b(A \& \sim C)/b(A)$ 는 낮을 것이다. ' $b(C | A) = b(A \& C)/b(A) = 1 - b(A \& \sim C)/b(A)$ '가 성립하므로 $b(C | A)$ 가 높을 것이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조건화(conditionalization)를 가정한다면 $b(C | A)$ 가 높을 경우 일반적으로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높은 정도로) 믿을 성향이 있다. 사실상 (5)의 오른쪽 조건 (ii)만으로도 $b(A \& C)/b(A)$ 가 높다는 것을 보장할 것 같다. 왜냐하면 $b(A \supset C)$ 가 $b(\sim A)$ 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높다는 것은 1에서 $b(\sim A)$ 를 뺀 부분 중 $(b(A \supset C) - b(\sim A))$ 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b(A \supset C) - b(\sim A))/(1 - b(\sim A)) = b(A \& C)/b(A)$ 가 크다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는 데는 정인교 교수님의 도움이 컸다.

($A \rightarrow C$)를 수용하지 않는다.³³⁾ (b)가 성립하는 경우 ($A \supset C$)의 믿음은 거의 전적으로 $\sim A$ 의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A 를 완전히 믿게 된다면 이전의 $\sim A$ 의 믿음을 버릴 것이고 아마도 ($A \supset C$)의 믿음도 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C 를 믿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A \rightarrow C$)를 수용하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멜러는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OVS)의 믿음이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sim O \rightarrow S$)의 수용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OVS)에 대한 믿음이 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수용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OVS)를 믿게 만들지만 (OVS)를 O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믿게 만드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조건문의 수용을 야기한다.³⁴⁾ 예컨대, 철수는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다고 믿지만,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을 낮은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케네디는 납치되었지만 살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경우 철수는 (OVS)를 믿지만 이 믿음은 거의 전적으로 O의 믿음에 기인하기 때문에 O를 믿는 정도와 (OVS)를 믿는 정도는 거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철수는 ($\sim O \rightarrow S$)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가 $\sim O$ 를 완전히 믿게 된다면, 이전의 O의 믿음과 이 믿음으로 인해 가지게 된 (OVS)의 믿음을 버릴 것이므로, S를 믿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서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케네디를 죽였다’를 지지하는 어떤 증거(혹은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수용하지 않는다.

($A \rightarrow C$)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A \supset C$)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sim A$

33) $b(A \supset C)$ 가 높지 않다면 ($A \rightarrow C$)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A \supset C$)를 믿는다는 것이 ($A \rightarrow C$)의 수용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34) 아마도 케네디의 암살을 알리지만 암살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신문, 방송 매체 등의 보도들이 이러한 증거일 것이다.

보다는 $(A \supset C)$ 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믿게 하는 증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A \rightarrow C)$ 는 $(A \supset C)$ 의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 $(A \supset C)$ 를 믿지만, 만약 $(A \supset C)$ 를 $\sim A$ 보다 충분히 더 믿게 만드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A \rightarrow C)$ 를 수용하지 않는다. $(A \rightarrow C)$ 의 주장은 단순히 $(A \supset C)$ 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것 같다. $(A \rightarrow C)$ 를 수용하기 위해 $(A \supset C)$ 에 대한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A \rightarrow C)$ 가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결론 내려야 하지 않은가? 즉 $(A \rightarrow C)$ 를 수용하기 위해서 $(A \supset C)$ 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sim A$ 를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A \supset C)$ 를 지지하는 증거(혹은 정보)를 가져야 한다면, $(A \supset C)$ 가 참이고 이런 참인 증거(혹은 정보)가 있는 경우 $(A \rightarrow C)$ 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직설법적 조건문에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A 가 거짓인 경우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생각한다. 이 어려움은 A 가 거짓인 어떤 경우 $\sim A$ 를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A \supset C)$ 를 완전히 지지하는 참인 정보가 있고, $\sim A$ 를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A \supset \sim C)$ 를 완전히 지지하는 참인 정보도 있기 때문에, 이 제안에 의하면 $(A \rightarrow C)$ 와 $(A \rightarrow \sim C)$ 모두 참이지만, 이 두 조건문 모두 참일 수는 없다는 것에 의해 드러난다.³⁵⁾

다음 예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이 예는 기바드의 잘 알려진 예와

35) 만약 일관적인 A 에 대해 $(A \rightarrow C)$ 와 $(A \rightarrow \sim C)$ 둘 다 참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A \rightarrow C)$ 와 $(A \rightarrow \sim C)$ 를 동시에 수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동시에 이 조건문 둘 다 수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둘 중의 하나가 수용된다면 하나는 거부된다. 그래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치를 가진다면, 일관적인 A 에 대해 $(A \rightarrow C)$ 와 $(A \rightarrow \sim C)$ 둘 다 참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스톨네이커(1968)의 가능 세계 이론에서도 일관적인 A 에 대해 $(A \rightarrow C)$ 와 $(A \rightarrow \sim C)$ 둘 다 참일 수 없다.

동일한 유형의 예이다.³⁶⁾

어떤 항공모함에서 어떤 신형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1-활주로와 2-활주로를 통해서만 이륙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제 영우는 1-활주로가 어제 공사 중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어제 그 신형 비행기가 이륙했다면 2-활주로로 이륙했다’(P→F)라고 주장한다. 철수는 2-활주로가 어제 공사 중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어제 그 신형 비행기가 이륙했다면 2-활주로로 이륙하지 않았다’(P→~F)라고 주장한다. 물론 실제로 그 신형 비행기는 어제 이륙하지 않았다.

이 예에서 영우와 철수가 각각의 조건문을 수용하는 것은 완전하게 정당화된다. 즉 어떤 잘못도 없는 증거 혹은 정보로부터 올바르게 각각의 조건문을 수용한다. 영우의 조건문 (P→F)의 수용을 지지하는 정보(증거)는 ‘1-활주로가 어제 공사 중이었다’이다. 이 정보는 실제로 참이다. 그리고 이 정보는 ~P를 함축하지 않지만 (다른 배경 지식과 함께) ($\sim P \vee F$)를 함축한다. 그래서 영우의 (P→F)의 주장은 완전히 정당화 된다. 유사하게 철수의 조건문 (P→~F)의 수용을 지지하는 정보는 ‘2-활주로가 어제 공사 중이었다’이다. 이 정보도 실제로 참이고 ~P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다른 배경 지식과 함께) ($\sim P \vee \sim F$)를 함축한다. 그래서 철수의 (P→~F)의 주장도 완전히 정당화 된다. 따라서 이 각각의 주장이 거짓인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즉, 이 조건문들이 진리치를 가진다면 둘 다 참일 것이다. 그러나 각주 (35)에서 말한 것처럼 (P→F)와 (P→~F) 둘 다 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두 조건문들이 참 또는 거짓이라는 즉, 진리치를 가진다는 가정이 잘못된 것 같다.

필자는 (소위 ‘기바드-현상’이 나타나는) 이 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³⁷⁾ 단지 필자는 이 예와 관련하여 왜 직설

36) Gibbard(1981), pp. 231-2.

37) 이 ‘기바드-현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Jackson(1990), Edgington(1995), pp. 293-4, Bennett(2003), pp. 83-6를 보아라.

법적 조건문이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지 어떤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A \rightarrow C$)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A \supset C$)에 대한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sim A$ 보다는 ($A \supset C$)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믿게 만드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의 믿음 상태를 이런 상태로 만드는 증거 혹은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만약 철수가 그 사과를 먹었다면 배가 아팠다’를 고려해보자. 철수는 실제로 그 사과를 먹지 않았으며 배도 아프지 않았지만, 나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가정하자. 만약 내가 ‘그 사과를 먹는 것은 배탈을 야기한다’라는 정보를 가질 경우, 나는 이 조건문을 수용할 것이다. 또는 내가 ‘철수는 배가 아플 때만 사과를 먹는 습관이 있다’의 정보를 가질 경우에도 이 조건문을 수용할 것이다. 또는 내가 ‘철수가 그 사과를 먹었다’와 ‘철수가 배가 아팠다’의 진리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명자가 이 두 문장의 진리치가 같다고 말하고 내가 명자가 제공하는 이 정보를 믿는 경우에도 이 조건문을 수용할 것이다. 이 마지막 경우처럼 이 조건문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정보는 전건이 표현하는 *사태*와 후건이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일 수 있다.

그래서 ($A \rightarrow C$)의 주장은 ($A \supset C$)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sim A$ 보다 ($A \supset C$)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믿게 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A가 표현하는 사태와 C가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어떤 인과적 관계와 같은 *사실적 관계*에 관한 증거 혹은 정보들만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조건문은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³⁸⁾ 그리고 직설법적 조건문의 주장은

38) 필자는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반사실적 조건문이 전건이 표현하는 사태와 후건이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어떤 사실적 관계에 관한 명제를 표현하며, 그래서 실질 조건문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생각

세계의 어떤 사실적 관계에 관한 믿음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독특한 인식적 위치에서 나의 이런 믿음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 혹은 정보들은 매우 다양하다. 즉, A가 표현하는 사태와 C가 표현하는 사태 사이의 어떤 사실적 관련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단지 A와 C 사이의 인식적 관련만을 주는 어떤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A \rightarrow C)$ 를 주장할 수도 있다. 예컨대, 내가 A와 C의 진리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A와 C의 진리치가 같다는 정보로부터 $(A \rightarrow C)$ 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필자는 이것이 $(A \rightarrow C)$ 의 주장이 $(A \supset C)$ 의 믿음 이외에 세계에 어떠한 것이 더 성립한다는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즉,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가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한다.³⁹⁾

특히 앞의 비행기 이륙의 예는, A가 거짓인 경우, 어떤 인식적 위치에 있다면 $(A \rightarrow C)$ 를 완전히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인식적 위치에 있다면 $(A \rightarrow \sim C)$ 를 완전히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X를 확신한다면 $(A \rightarrow C)$ 를 100% 수용해야 하고, Y를 확신한다면 $(A \rightarrow \sim C)$ 를 100% 수용해야 하는 어떤 참인 정보 X와 어떤 참인 정보 Y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A \rightarrow C)$ 가 진리 조건을 가진다면, 즉 명제를 표현한다면 이런 두 정보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⁴⁰⁾

한다. 즉, 반사실적 조건문의 주장은 이 사실적 관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추론적 성향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9) 따라서 $(A \rightarrow C)$ 가 어떤 진리 조건을 가진다면,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A \rightarrow C)$ 는 어떤 진리 조건도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는다.

40) 이것을 보이기 위해, $(A \rightarrow C)$ 가 어떤 명제를 표현한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에 의해, X를 100% 확신할 경우 $(A \rightarrow C)$ 를 100%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X가 $(A \rightarrow C)$ 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것과, Y를 100% 확신할 경우 $(A \rightarrow \sim C)$ 를 100%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Y가 $(A \rightarrow \sim C)$ 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참인 정보 X와 참인 정보 Y가 있다면 $(A \rightarrow C)$ 와 $(A \rightarrow \sim C)$ 가 둘 다 참이지만,

$(A \rightarrow C)$ 의 주장은 $(A \supset C)$ 의 진리 조건이 성립한다는 믿음 이외에 세계에 관한 어떤 다른 특정한 사태가 성립한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A \rightarrow C)$ 는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보다 더 강한 진리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A \rightarrow C)$ 의 주장은 $(A \supset C)$ 의 믿음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의 인식적 위치에서 $\sim A$ 보다 $(A \supset C)$ 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믿게 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A \rightarrow C)$ 는 $(A \supset C)$ 의 진리 조건도 가지지 않는다.

VII. 마치면서

필자는 앞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이론은 아담스 논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부 믿음의 정도를 두 절대적 믿음의 정도의 비로 정의할 때 아담스 논제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6) \quad a(A \rightarrow C) = b(A \& C) / b(A), \quad \text{단 } b(A) \neq 0.$$

필자의 수정된 성향 이론은, (6)이 성립할 때,⁴¹⁾ 왜 이것이 성립하는지 베이즈 이론의 조건화(Conditionalization)의 도움을 받아 설명할 수 있다.⁴²⁾ 현재 나의 $(A \rightarrow C)$ 의 수용 정도가 n 이라고 가정하자. 성

(A가 일관적이므로) 각주 (35)에서 말한 것처럼 이 조건문 둘 다 참일 수는 없다.

41) 어떤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에 대해, A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A \rightarrow C)$ 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rice(1986), 20, 21쪽을 참조하라.

42) 베이즈 이론에서, b 를 원래의 믿음 체계를 표상하는 믿음 함수라고 하고 b' 를 A를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수정된 사후 믿음 함수라고 할 때, '조건화(Conditionalization)'로 알려져 있는 논제에 따르면 b 와 b'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향 이론에 의해 이것은 내가 A를 완전히 믿게 된다면 C를 n의 정도로 믿을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A를 완전히 믿게 된 후, 수정된 믿음 함수 b'에서 C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n일 것이다. 조건화를 가정한다면 이 수정된 믿음 함수 b'에서 C에 대한 믿음의 정도 n은 원래의 믿음 함수 b에서 두 믿음의 정도의 비 $b(A\&C)/b(A)$ 와 같을 것이다. 역으로 나의 $b(A\&C)/b(A)$ 가 n이라고 가정하자. 조건화에 의해 내가 A를 완전히 믿게 된 후 C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n이어야 한다. 즉, 내가 합리적이라면 A를 완전히 믿을 경우 C에 대해 n의 정도로 믿을 성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향 이론에 의해 나는 $(A \rightarrow C)$ 를 n의 정도로 수용한다. 이렇게 성향 이론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아담스 논제를 설명할 수 있다.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의 주장은 단지 $(A \supset C)$ 의 믿음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만약 철수가 그 사과를 먹었다면 철수는 아팠다’($E \rightarrow S$)의 주장은 단지 $(\sim E \vee S)$ 의 믿음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주장은 ‘철수가 그 사과를 먹지 않았거나 철수가 아팠다’를 믿게 하면서, 이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철수가 그 사과를 먹지 않았다’에 대한 믿음의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더 높게 하는 어떤 증거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 이 정보는 ‘그 사과를 먹는 것은 배탈을 야기한다’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혹은 정보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 증거 혹은 정보의 다양함으로 인해 직설법적 조건문의 주장이 $(A \supset C)$ 의 진리 조건 외에 세계에 관해 어떤 것이 더 성립한다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 것 같다.

멜러가 과거에 관한 직설법적 조건문 ‘만약 A이면 C’가 $(A \supset C)$ 의

$$(b(A) \text{가 } 0 \text{이 아니라면}) \text{ 모든 } X \text{에 대해, } b'(X) = b(X | A). (=_{\text{def}} b(A\&X)/b(A))$$

말로 표현하면, A를 알게 된 후 나타나는 수정된 사후 믿음 함수 b'에서 X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이전의 믿음 함수 b에서 A라는 가정 하에서 X에 대한 조건부 믿음의 정도와 같아야 한다.

진리 조건을 가진다고 주장할 때 멜러는 이 증거 혹은 정보의 역할을 깨닫지 못했다. $(A \supset C)$ 를 믿는다고 하여도, ‘만약 A이면 C’의 수용을 보장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 조건문을 주장하는 것은 청자를 기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청자가 나를 믿는다면, 그는 내가 이러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어떤 다른 결론도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이다.⁴³⁾

43) 이 논문을 꼼꼼히 읽고 매우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두 분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정당한 지적을 미처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필자의 책임이다.

참고문헌

- 정인교(2002). “이가 원리 · 반사실적 조건문 · 실재론”, 『현대철학과 언어』 한국철학회.
- Adams, E.W. (1966). “Probability and the Logic of Conditionals”, in Hintikka, J. and Suppes, P. eds., *Aspects of Inductive Logic*. North Holland, pp. 256-316.
- _____ (1975). *The Logic of Conditionals*. Dordrecht: Reidel.
- _____ (1998). *A Primer of Probability Logic*. Stanford: CLSI Publications.
- Bennett, Jonathan (1988). “Farewell to the Phlogiston Theory of Conditionals”. *Mind*, 97, pp. 509-27.
- _____ (1995). “Classifying Conditionals: the Traditional Way is Right”. *Mind*, 104, pp. 331-44.
- _____ (2003). *A Philosophical Guide to Conditionals*. Oxford University Press
- Dudman, V. H. (1988). “Indicative and Subjunctive”. *Analysis*, 48, pp. 113-22.
- _____ (1992). “Probability and Assertion”. *Analysis*, 52, 4, pp. 204-11.
- Edgington, Dorothy (1986). “Do Conditionals have Truth Conditions?”, in Jackson (ed.) 1991, pp. 176-201.
- _____ (1995). “On Conditionals”. *Mind* 104, pp. 235-329.
- Eells, E. and Skyrms, B. (eds) (1994), *Probability and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bard, A. (1981). “Two Recent Theories of Conditionals”, in Harper, Stalnaker and Pearce (eds.) 1981.

- Harper, W.L., Stalnaker, R., and Pearce, C.T. (eds.) (1981). *Ifs*. Dordrecht: Reidel.
- Jackson, Frank (1987). *Conditionals*.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 (1990). “Classifying Conditionals I”, *Analysis*, 50, pp. 134-47.
- _____ (ed.) (1991). *Conditionals*. Oxford: Clarendon Press.
- Lewis, David (1973). *Counterfactuals*.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 (1976). “Probabilities of Conditionals and Conditional Probabilities”. *Philosophical Review*, 85, pp. 297-315.
- Mellor, D.H. (1993). “How to Believe a Conditional”. *Journal of Philosophy*, 90, pp. 233-48.
- Price, Huw (1986), “Conditional Credence”, *Mind* 95, pp. 18-36.
- Ramsey, F.P. (1926). “Truth and Probability”, in Ramsey 1931, pp. 158-98.
- _____ (1929). “General Propositions and Causality”, in Ramsey 1931, pp. 237-55.
- _____ (1931).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London: Loutledge and Kegan Paul.
- Stalnaker, R. (1968). “A Theory of Conditionals”, repr. in Harper et al. (eds.) (1981), pp. 41-55.
- _____ (1975). “Indicative Conditionals”, *Philosophia*, 5, pp. 269-86, repr. in Jackson, F. ed. 1991, pp. 136-54.
- _____ (1984) *Inquiry*. Cambridge MA: MIT Press.
- Whyte J. T. (1990) “Success semantics”, *Analysis*, 50.3, pp. 149-57.

ABSTRACT**Mellor's Disposition Theory of Conditionals and Truth
Conditions of Conditionals**

Roh, Ho-Jin

Adam's thesis states that a degree of acceptance of an indicative conditional is equal to the conditional credence of its consequent given its antecedent. There is much evidence to support Adam's thesis. However, Lewis's triviality results seem to make this thesis deprive conditionals to which it applies of truth conditions. Mellor insists that Lewis' results do no such thing because an assertion of 'if A then C' expresses a disposition to infer C from A, not a certain belief. He also argues that past-referring indicative conditionals like 'if Oswald didn't kill Kennedy, someone else did' have truth conditions of their material conditionals.

I will refute Mellor's argument and insist that these conditionals don't have truth conditions of their material conditionals. Furthermore, I shall argue that indicative conditionals have no truth conditions. And I will also give a reason to hold that indicative conditionals have no truth conditions by uncovering what is needed for the acceptance of an indicative conditional in addition to a belief in the material conditional.

Keywords: Indicative Conditionals, Adams Thesis, Triviality Results, Mellor's Disposition Theory of Conditionals, Truth Condition

